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0.70원 하락한 1,277.00원에 마감

28일 환율은 전일대비 0.70원 하락한 1,277.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30원 상승한 1,285.00원에 개장했다. 달러 강세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개장 이후 1,280원대 초중반의 좁은 범위에서 거래됐다. 역내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엇비슷하게 수급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후 장에서는 BOJ의 통화정책회의를 소화하면서 환율은 상승 폭을 축소하고 1,277.00원에 마감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5.7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85.00	1285.00	1275.80	1277.00	1280.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04.57	925.77	904.57	910.1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02.38	1410.71	1397.47	1406.5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	-4.94	-12.7	-28.28
결제환율(수입)	0	-3.73	-11.13	-25.1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 가능

금일 전망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1,27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277.00) 대비 1.60원 하락한 1,273.20원에서 최종화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 회복 및 네고물량 유입 영향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6월 PCE, 근원 PCE는 전년대비 3.0%, 4.1% 상승하며, 헤드라인은 예상에 부합했고 근원은 컨센서스(+4.2%)를 하회했다. 최근 미국 2분기 성장 호조 이후 PCE 가격 상승 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경기침체보다 골디락스(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이상적인 경제상황)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에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으며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동반 하락했다. 주말간 위험자산은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 국내증시도 외국인 자금 순

매수 전환 가능성에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월말 수출업체 네고 및 중공업 환해지 물량 유입 또한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를 비롯한 저가매수 유입은 하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69.00 ~ 1278.33 원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37.88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6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다우지수 : 35459.29, +176.57p(+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6.21 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55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